

요양병원

손 장 순(시인)

바람 불어
하얗게 마른 갈대

고운 꽃 피워 놓고
갈바람 날리니
서럽다 말 못 하고

그냥 잘 가라
몸으로
인사하네

질어가는 가을만큼
저 등선 넘어
바람 앞의 생명
자유를 벗어버린
숨길 수 없는 어둠

가슴으로 안겨오는
오늘
덧없이
늘어져간 세월 속에
나를 모두
비워버리다

세월은 바람처럼 불어와 하얗게 마른 요양원의 노인들을 만들었다. 정성을 다 하여 이루어놓은 것들을 갈바람 날리니 그냥 놔두고 잘 가라한다. 낙엽처럼 바람 앞에 자유를 빼앗겨버려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어둡게 드러낸다. 이제는 더 바라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가져다주는 오늘을 거부할 수도 없다. 차라리 마음속을 비워 세월의 흐름에 실려 어떻게 되든 떠내려 가려한다. 어떤 의사를 밝히고 싶은 의욕도 퇴색되어 날아갔다.

현실을 떠나버린 빈 몸들이 요양원 사람들의 보살핌에 따라 질이 드러진 몸짓에 불과한 오늘이라는 공간에 맡겨진다. 상실한 존재감은 더 이상 찾을 필요성조차 없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열차에 탄 승객들의 방이다. 이곳에만 한정된 모습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밝아야 할 절차라고 화자는 운명이라는 명령이라 승복하려한다.

대보에 대한 추억

김 제 일(진도문화원 칼럼리스트)

펼 펼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내가 군내국민학교 다닐 때, 2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렸던 겨울 동요 ‘펼 펼 눈이 옵니다’이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면 아득히 먼 국민학교 청소년기 시절의 눈이 내린 다음날 잊지 못할 월강 대보에서 썰매 타다 얼음이 깨져서 깊은 대보의 물에 빠져 덜덜 떨었던 옛 추억이 떠오른다.

그 때도 며칠 동안 눈이 계속 내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하고 고요 속에 이따금 산새들만 여기 저기 지저귀고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집집마다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눈치우기 바빴고 굴뚝에선 어머니가 아침밥 짓느라 시켜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날 아침 눈을 치우고 아침밥을 먹은 후에 아랫동네 삼거리에 나가니 많은 아이들이 편을 나누어 눈을 몽쳐 던지는 눈싸움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나도 거기에 끼어 즐겁게 눈을 몽쳐 던지기도 하고 커다랗게 눈사람을 굴리면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갔다. 눈싸움이 끝나고 우리는 대보에 썰매 타러 가기로 약속한 후 집에 있는 썰매를 가지고 삼거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 당시 썰매는 날씨 좋은 날 대부분 아이들이 모여 만들었다. 썰매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양쪽 날에 단단한 철을 고정시켜 썰매가 얼음에 잘 미끄러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강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하여도 구부러 고정시키는 작업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철다루는 솜씨가 능숙한 동네 아저씨나 형들의 힘을 빌렸다.

삼거리에 모인 아랫동네 아이들은 솜털 같이 새하얀 눈을 밟으며 대보를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는 방천을 넘어 고만샘과 이씨보를 거쳐 삼십 여분 후에 대보에 이르렀다. 그곳까지 가서 썰매를 타는 이유는 대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빙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창목에서 매섭게 불어오는 하늬바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썰매를 타기 시작하였다. 휘이잉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고 썰매봉을 얼음에 힘차게 찍어 달리는 기분은 상상 이상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타다 보니 썰매가 빈번하게 지나간 곳이 패이면서 얼음이 마치 연한 엿가락처럼 움직여

서 이곳을 지나갈 때는 더욱 스틸 만점이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다. 내가 힘차게 썰매 타고 이곳을 질주하는 순간 갑자기 요동치던 얼음이 우지직 금이 가면서 깨져버렸다. 그 순간 나는 썰매와 함께 차갑고 깊은 대보 물속으로 들어가고 함께 썰매를 타던 아이들은 근심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꺼운 겨울옷 사이를 뚫고 들어온 대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느껴지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손으로 얼음을 보듬고 다른 손에 썰매를 쥐고 한발 한발 내딛어 얼음 위로 올라오면 깨지고 다시 온 힘을 다해 올라오면 깨지기를 반복했지만 젓 먹던 힘을 다하여 조심조심 얼음 위로 올라와 대보 독으로 나왔다. 그 모습이 물에 빠진 새앙 쥐 마냥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가까스로 대보 독 밖에 나오니 아이들이 곁에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어떤 아이들은 주변에서 나무를 한 아름 가져와 모닥불을 피웠다. 우선 젖은 옷을 벗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물기를 없애기 온 힘을 다해 옷에 물기를 없앴다. 이이들 중에는 먼 곳까지 가서 장작더미를 가져와 불씨를 크게 만들었다. 나는 불 옆에서 옷을 말리면서 퐁퐁 언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옷은 거의 마르고 기분도 이전처럼 회복되어 유쾌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대보에서 얼음에 금이 갈 때까지 썰매를 타는 것이 무모해보이고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때는 월강 방죽과 같은 깊은 물에 목욕하거나 대보에서 썰매 타는 것에 대해 전혀 겁을 내지 않았다. 그 당시 동네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하루에 한번은 가까운 곳인 바탕내 대보 방죽에서 물놀이를 했기에 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친근한 이웃사촌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 깊은 대보에 빠졌을 때도 여유 있게 썰매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요즈음 마스크에서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 아이들을 옛날처럼 강하게 키웠으면 사고가 났을까(?) 하고 혼자 반문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 내가 대보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깨지는 얼음을 보듬고 나오는 장면과 밖에 나왔을 때 모닥불을 피워 옷을 짜주면서 위로해주었던 아릿동네 아이들의 순수한 영상 그리고 온실의 화초처럼 연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동시에 스쳐갔다.

나는 대보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사회의 기둥인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면서 서로 간에 정을 느끼고 심신이 더욱 강인해지기를 소망했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